

전 남

여수 석창성지 정화사업 10년째 '낮잠'

사업비 부족 토지 매입작업 지지부진

조속 복원 국가사적지 승격 물건너가

임진왜란 당시 종합 군수무기 제작 저장소로 이용된 여수시 석창성지(전남도 지방기념물 106호)의 정화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 매입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10여 년 동안 107필지(7만8천61㎡) 가운데 94필지(6만8천369㎡)를 매입해 머물러 13필지(9천92㎡)를 아직 매입하지 못해 오는 2010년까지 정화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해 토지 매입사업비 20억을 전남도에 신청했지만, 겨우 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해 1필지를 매입하는데 그쳐 현재 13필지를 더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도 지정 문화재인 석창성지를 국가사적지로 승격시켜줄 것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석창성지 정화사업은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올해 전남도에 신청한 20억원의 토지매입비만 확보되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창성지 정화사업은 1차적으로 2010년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고, 2011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복원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총 101억1천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16세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석창성지는 현재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대부분 훼손됐으나, 1980년대 후반 기초발굴작업을 거쳐 1987년 전남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됐다.

이후 1990년 구 여천시가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아와 성벽을 복원하는 석창성 복원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2002년 명지대 발굴팀에 발굴용역을 의뢰해 1억7천여만원을 들여 1차 발굴 작업을 마친 상태다.

시민 김도씨(56)는 "지방기념물로 지정된 석창성에 대한 깊은 연구와 조속한 복원을 통해 국가사적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여수의 관문인 석창성과 함께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인 좌수영성 복원, 고라산성 및 달암산성 등 산성을 연결한 역사테마관광 코스로 함께 개발해 엑스포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전복은 완도산이 최고" 완도군 직원들이 2일 청정해역에서 다시마를 먹고 자란 완도산 전복을 들어 보이며 '올 추석선물로는 최고'라며 활짝 웃고 있다. 전복은 지난해보다 깊이 올라 kg당 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완도군 제공)

강진 어민들 '만선의 꿈' 기원

5일 도암 신기리 망호부두서 '풍어제' 열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강진만 풍어제가 5일 도암면 신기리 망호부두 일대에서 열렸다.

강진만 풍어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춘배)가 주관하는 강진만 풍어제는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하고 풍어제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풍어제는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와 길놀이로 시작으로 노래자랑, 사물놀이 및 국악 그리고 풍바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짜여 있다. 또 강진만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전어로 만든 화·구이·무침 등을 맛볼 수 있다. 특히 행사에 앞서 50여 척의 크고 작은 어선들이 강진만 만덕리 해상항에서 행사장인 망호 선착장까지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는 선상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김춘배 위원장은 "풍어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높은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초가을 '전어의 참맛' 느끼세요

26·27일 회천 해수풀장서 '보성 전어축제'

'가을의 별미'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보성 전어축제'가 오는 26·27일 보성군 회천면 해수풀장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보성 전어축제는 보성 전어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특산물에서 갓 잡아 올린 전어를 테마로 해 더욱 풍성해진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할 계획이다.

주요 행사로는 무료 전어 잡기 체험과 전어요리 시식, 전어 구이 맛보기 등 체험행사와 문화 공연, 노래자랑, 관광객 어울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해수풀장에 전어를 풀어 놓고 참가자들이 직접 잡은 전어를 즉석에서 화와 구이로 맛볼 수 있는 전어잡기 체험과 전어요리 시식은 이번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김경남 전어축제 추진위원장은 "보성전어야말로 가을철 보약이며, 여름철 잃었던 입맛을 되살려 줄"이라며 "전어축제가 모두에게 맞게 맛있는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전남농협 '1사1촌상' 시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2일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교류 증진과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중호)와 회소군 북면 노기리 마을(영농회장 조희선), 동북농협(조합장 김형래)에 1사1촌상을 시상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2일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교류 증진과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중호)와 회소군 북면 노기리 마을(영농회장 조희선), 동북농협(조합장 김형래)에 1사1촌상을 시상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진도 홍주 마셔봤니? 아직~"

민속주 홍보차 만든 '홍주쌈' ... 포털 사이트 인기

'홍주 마셔 봤니? 홍주 마셔 봤니? 아니! 아니! 못 마셔 봤는데 (안마셔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40도가 넘지않 소주보다 부드러워, 진도의 쌀과 보리, 지초로 만든 홍주~'

전통 민속주도 인기를 끄는 진도 홍주를 소재로 한 '진도 홍주' 노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분 10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인

터넷을 통해 널리 퍼진 '홍주쌈'은 진도군이 홍주를 홍보하려고 만든 발라드곡으로 가수 차여울이 부른 노래다.

4분의 4박자로 따라 부르기 쉬운 이 노래는 가사에 홍주 원료와 제조법, 맛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홍주를 국민주로 만들고자 홍주의 날(7월 7일) 제정에 이어 '홍주쌈'을 개발

했는데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면서 진도 홍보에도 한몫하고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전국 노래방에서도 '홍주쌈'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 홍주는 2003년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명품화에 성공해 미국, 캐나다, 중국, 아프리카 가나 등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다.

전통 민속주인 홍주는 쌀과 보리를 원료로 증류해 만든 곡주에 한약재인 지초를 사용, 지초주(芝草酒)라고도 하며 맛과 향, 색을 모두 갖춘 전통주로 유용하게 진도 지역에서만 전승 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형영기자 hyppark@

"순천대 생존방법은 특성화대학"

충동창회 주최 '발전방향 토론회' 주장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특성화대학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순천대충동창회가 마련한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순천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전남도의회 박종수 의원은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관련 순

천대 생존가능성 및 생존방안' 주제 발표에서 "순천대는 지역 고교생 진학률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미달 학과 발생 가능성 일면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 개혁에 이은 행정체제개혁 추진 등에

따라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의 정치·경제·교육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차원의 광안만 발전지원은 위기에 처한 순천대의 도약 기회이기도 하다"고 변화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순천대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인재 유치와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률 통한 인재양성 ▲연구 기반 조성 ▲대학연수 및 교환학생 파견 등 특성화 대학 브랜드 구축과 약화대학 신설 추진 등을 주문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Advertisement for '금산공인중개사' (Jeonnam Public Real Estate Broker)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Homecon Real Estate Research)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Court Auction Real Estate Sale Notic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dvertisement for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생' (Gwangju District Court Judicial Secretary Nodoksaeng) with a table of auction details.